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 연구

—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을 중심으로 —

南 燕*

〈 차 례 〉

- I. 서론
- II.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여건
- III.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육 목표
- IV. 한국 문학 작품의 선정 및 조직화
- V.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 VI. 결론

I. 서론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중국 4년제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육과정중의 문학교육에 필요한 세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①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②한국 문학 전공지식 교육¹⁾(한국 문학 연구를 종사하려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분야인 한국 문학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본격적인 문학 교육으로 입문적인 성격을 지님), ③한국 문학사 교육(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1) 남연(2004)의 기존 논문에서 ‘한국 문학 특질 이해 교육’으로 명명해왔지만, 문학 전공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문학 전공지식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문화교육 및 문학교육)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학이란 성격을 지니는 한국어학과와 양성 목표와 교육 목표²⁾ 및 이에 따른 한국어학과와 교수·학습 내용³⁾에 근거하여 설정한 것이다.(남연, 2004: 52-54)⁴⁾ 그리고 이러한 문학교육의 측면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필자는 ①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② 한국 문학사 교육→③ 한국 문학 전공지식 교육 세 단계로 위계화 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⁵⁾

- 2) 남연(2004: 45-48)은 기존 한국어학과와 양성 목표와 교육 목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규정하였다.

구 분	내 용
양성 목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며 문화적 소양, 도덕적 소양, 전공지식을 지니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전문 분야(대학원, 외교부, 기타 정부기관, 회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목표	전면적 의사소통 능력과 전문분야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 문화 능력을 길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다. 가. 듣기·말하기·쓰기·읽기·번역하기 가운데 어느 한 기능에도 편중되지 않게 의사소통 능력을 골고루 신장시키고, 전면적이고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현실 생활에서의 활용 능력을 기른다. 나.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공 방향을 설정하여 해당 전공 방향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전문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한국과 관련된 폭넓은 문화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으로써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지식 창고로서의 문화 능력을 갖는다. 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다.

- 3) ① 전면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듣기·말하기·쓰기·읽기·번역하기 가운데 어느 한 기능에 편중되지 않은 고른 신장과, 여러 분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의미함), ② 전문 분야(한국 문학, 경제 등 분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 ③ 문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문화 지식 교육.(남연, 2004: 48-52)
- 4) 이는 중국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이어야 하고, 나아가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 즉 본격적인 문학교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논의는 주옥파(2003: 2004)가 있다.
- 5) 남연(2004)은 기존 논문에서 문학교육의 이런 측면들을 ①한국 문학 읽기 교육→②한국 문학 특질 이해 교육(한국 문학 전공지식 교육)→③한국 문학사 교육으로 위계화한

이 세 단계는 또한 각각 한국 문학 작품 읽기 수업인 韓國文學作品選讀(3학년 1, 2학기), 한국문학사(4학년 1학기), 한국문학론 입문(4학년 2학기)⁶⁾ 세 과목으로 수렴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면, 첫째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인 문학 작품은 논설문이나 실용문 등과 구별되는 일종의 문종이기도 하므로, 전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중국 한국어학과와 한국어교육의 장에 끌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란, 듣기·말하기·쓰기·읽기·번역하기 가운데 어느 한 기능에 편지 않은 여러 분야의 의사소통 능력의 고른 신장을 의미하며, 또 초·중급이 아닌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①한국 문학 읽기 교육→②한국 문학사 교육→③한국문학 전공지식 교육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위계화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이란 먼저 작품이라는 실체가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문학사가 서술된다. 따라서 문학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문학사를 배울 때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학사를 배우기 전에도 문학 작품을 미리 많이 읽어서 문학에 대한 체험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학사를 학습하기 전에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특히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중국 4년제 한국어학과와 학생)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외국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더 구체적으로 한국문학 작품을 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을 생소한 만큼 어려워하는 이들이, 문학 실체인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문학 작품을 더 깊이 이해·감상·비평하여 한국문학사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문학연구에 종사하려면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 및 기본 문학 지식과 소양으로서의 문학사 학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습자가 한국 문학 연구에 종사하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한국 문학 전공지식 교육'이 '한국 문학사 교육' 다음으로 배정되는 것이 적당하다.

- 6) 이 과목은 한국 문학 연구에 종사하려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 문학 연구에 관한 기초적 학문 지식을 가르치도록 한다. 구체적 내용 구성은 면밀한 연구를 통해 밝히겠지만, 한국 작가론, 한국 문학 장르론, 한국 문학사조론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면 이들 내용을 다룰 때 그 깊이보다는 오히려 개괄적 소개 정도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한국 작가론을 다룰 때 개별 작가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도하는 것보다 한국 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작가들에 관한 연구 상황 소개정도의 개론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다.

고급 의사소통 능력까지의 신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면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언어자료를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게다가 문학 작품은 ①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②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를 지니는 자료, ③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를 지니는 자료 ④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을 시킬 수 있는 자료(윤여탁, 2003: 5-6 재인용)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고급스러운 문장과 다양한 어휘, 표현 문체, 풍부한 문화 요소 등을 학습함으로써 고차원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이 신장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상상력의 세계를 넓힘으로써 제공된 고급스러운 언어의 운용 연습 기회에 힘입어 세련된 언어 능력의 신장을 돕는다. 둘째,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문학(작품)은 인간의 정신적 문화를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대상국 사람들(여기서는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외국어 교육이 그러하듯이, 중국 한국어학과의 한국어교육도 그 최종 목표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을 통해 한국인을 이해하고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요소와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들어 있는 정신적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삶을 가꾸고 길러나가는 토대로서, 개인이나 사회의 정신적 흐름을 가장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학 작품(여기서 한국 문학 작품)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즉 앞의 논의에서 언급한 다음 두 단계인 한국문학사 교육과 한국문학 전공지식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문학사나 문학을 학습하려면 문학의 실체인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韓國文學作品選讀”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름지기 문학은 철학, 역사학, 심리학 등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다른 인문학 분야처럼 인간의 정신활동을 다루는 독립된 영

역으로 그 나름대로의 규칙과 특징이 있으므로, 다른 것과 구별시켜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다루어지는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은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에 있어 중요한 기초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 이 과목에 대한 성실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국 대부분의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중의 문학교육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⁷⁾ 적절한 문학 교재가 없으며,⁸⁾ 교사 중심의 講讀식 교수법을 고수하고, 전문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⁹⁾ 문학 작품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¹⁰⁾도 전무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는

- 7) 그 동안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본문의 논의와 같은 논리적인 해석 없이 그저 문학을 풍부한 언어문화 요소를 담는 장점으로, 고급단계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자료로만 간주하여 작품 속의 어휘나 문법 해석에만 치중하여왔다.
- 8) 중국의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에는 아직까지 통일된 문학 교재가 없다. 각 대학교는 담당 교사에 의해 작품(주로 명작)을 선정하여 가르치거나 한국에서 문학 작품집을 가져와 가르쳐 왔다.(필자가 북경대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6년에, 한국인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에서 출판된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 35선』(타임기획)을 교재로 사용하여 배운 바 있다.) 당시 대외경제무역대학교는 서영빈(1995)이 편찬한 『한국현대문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북경외국어대학교는 김경선(1997)의 『한국문학선집』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앞의 책은 한국어학과 학생을 위해 편찬된 교재이지만 현대 문학 작품만을 다룬다는 점, 학생의 언어 능력만을 고려하여 작품 선정하였다는 점 등 때문에 교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뒤의 책은 처음부터 교재용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 현장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9) 그 동안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결국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 비문학 전공자에 의해 한국 문학 작품을 가르쳐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서영빈, 2001: 199)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점차 늘어 이런 상황이 차츰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학 교재의 부재, 교수법 등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들 전공자 역시 현장에서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10) 이에 관한 기존 논의로는,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위상을 밝히는 주옥파(2003), 남연(2003), 주옥파(2004)가 있으며, 문학교육 문제와 문학교재 개발 문제를 다룬 서영빈(2000), 이은숙(2001b), 장영미(2003)가 있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안한 이은숙(2001a), 김경선(2004) 등이 있다. 그리고 문학교육방법을 논한 문복희(2001)가 있으며 문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남연(2004) 등이 있다.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현 단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실제에서 체계화되도록 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목표, 내용 선정(작품 선정), 교수·학습 방법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여건

교육이란 인간(교육주체, 교사)이 인간(교육대상, 학습자)을 인간(교육목표)이 깨닫게 만드는 일이다. 이 중에서 교육대상인 '인간'(학습자)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교육목표인 교육결과를 보여주는 대상으로 교육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주어지는 성장·학습 환경 등 요인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학습 여건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므로 '인간'이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즉 효과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대상인 '인간'의 속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과정의 요소들을 고안하기를 앞서 모국어 학습자의 학습 여건과 다른 외국인 학습자¹¹⁾의 학습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이 송희재(2002: 249-256)는 외국어 문학 텍스트 읽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이 특징들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텍스트의 여러 가지 층위—철자, 단어, 문장, 담화 등—에서 독자가 외국어로 읽을 때에는 모국어로 읽을 때와 같이 스키마를 적절하게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¹²⁾

11)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가리킨다.

12) 이것은 외국어로 읽는 독자가 텍스트의 함축적 의미 뿐 아니라 명시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텍스트의 기초적인 부분을 해명하는 일에 많이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적의 상태가 아닌 외국어 읽기는 어쩔 수 없이

② 외국어로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그 텍스트를 수용할 때 무엇보다도 특별한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란 바로 모국어 독자와는 같지 않은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심리적으로 특수한 그 어떤 것을 말한다.¹³⁾

③ 외국어를 읽는 독자는 모국어만큼 외국어의 음소, 음운, 문법 등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텍스트의 이해를 반드시 어렵게만 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다기 보다 한편으로는, 모국어 독자들보다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즉 모국어 독자들이 빨리 읽음으로써 놓칠 수 있는 문학 텍스트의 섬세한 미적 가치들에 외국어 독자들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¹⁴⁾

읽기의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또한 독자가 읽은 내용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의 저하와 함께 그 내용을 뇌에 기억시키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이와 같은 명시적 텍스트 작업은 외국어를 읽는 독자에게 의미론적 문제—즉 독자가 언어적 의미구조를 거의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를 준다. 왜냐하면 독자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장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은 독자의 확대된 문장론적(수용)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어로 읽는 독자는 대부분 문장론적 분석을 취할 수밖에 없다.

- 13) 이 때문에 문화적 배경 지식을 작동시키는 문학 읽기에서 외국문학을 읽는 독자에게 그 텍스트를 적절한 문맥 속에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 문화에 특수한 스키마를 구성하고 독서의 기대 지평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또는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문화에 특수한 스키마 또는 장르에 특수한 유희 규칙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다른 스키마를 소유하고 있다면, 작가에 의해 의도된 내용이 독자에게 왜곡 수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바로 수용 미학적 의미에서 빈자리 내지 미정성 자리 때문에 문학 텍스트에서의 이러한 가능성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이용하여 채워야만 하는데 해당 외국어 또는 그 나라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 채워야 할 빈자리 내지는 미정성 자리의 부분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 14) 문학적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읽기 방법이다. 문학 텍스트의 심미적 언어란 “의도적으로 어렵게 쓰였고”, “균열되어 있으며”, “기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소위 “지체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빨리만 읽으려는 독서 방법이 이해의 관점에서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독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빨리 읽을 수도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문학 텍스트의 빈자리 내지 미정성 자리는 독자에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어렵게 하고, 심미적 언어는 생각의 형성을 지체시키거나 어렵게 하지만, 이러한 결정행위의 지연이나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독자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외에는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도 덧붙일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학 교육을 받기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모국어로 자기 나라 문학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 학습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중·고등학교의 자기 나라 문학 교육을 받은 외국인 학습자는 나름대로 자기 나라 식의 문학관이 형성되고 자기 나라 식 문학 작품 읽기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문학관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읽기 방법이 요구될 수 있는 한국 문학 작품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물론 서로 맞아떨어질 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자기 나라의 문학관이 어떻게 다르고, 문학 작품 읽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과 자기 나라의 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요하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중 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¹⁵⁾

⑤ 모국어 학습자인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모국어 학습자인 한국인에게 한국 문학 학습은 ‘공동체 형성’이란 민족적 목표가 있는데 반해,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러한 민족적 주체 형성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데올로기와 감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다고 보다는, 그런 것들과 결부된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점은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수·학습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학습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현재 연구 중이므로 여기서 미처 밝히지 못하였다. 곧 성과를 내어 보완하도록 하겠다.

16)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김승환(2002:73-79)을 참조할 것.

III.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육 목표

기존에는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육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문학 텍스트 속에 있는 대량의 생소한 어휘, 문장, 표현, 문화 내용 등에만 몰두하다 보니 문학 텍스트를 자칫 일반 텍스트로 간주하여 그 어휘, 문장, 표현, 문화 내용 등에 대한 해석만을 하고 수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적어도 진정한 문학 작품 읽기란 것이 그 속에 들어 있는 어휘·문화의 단순한 내용이해 이상의 것임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 과목의 교육 목표는 분명히 재고해 봐야할 명분이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 과목의 교육 목표는 이 학습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문학 작품을 스스로 읽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즉 진정한 한국 문학(작품) 읽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진정한 문학(작품) 읽기란 무엇인가?

역사적인 변천에 따라 문학(작품) 읽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 대체로 작가 중심의 읽기, 작품 중심의 읽기, 독자 중심의 읽기 이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¹⁷⁾ 오늘날의 독자 중심 읽기 이론에 따르면, 문학(작품) 읽기란 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텍스트의 불확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감정 이입된 텍스트 내의 세계에서 텍스트 바깥에 있는 현실적 자아로 냉정하게 회귀하는, 다시 말해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 수반되는 감정이입과 비평적 거리두기의 상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인 ‘자아’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상상력이 발휘된다.

17) 작가 중심의 읽기는 실증주의 비평, 사회·역사 비평, 전기식 연구 및 각종 창작 심리 분석 연구 등에 근거하여 작가가 작품에 기탁한 본의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還原本적 색채를 띠는 읽기이고, 작품 중심의 읽기는 러시아 형식주의, 영미 신비평주의 및 구조주의 비평 등으로부터 뒷받침 받아 문학 텍스트를 완결된 물체로 보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재적 의미를 해석하는 閉鎖적 색채를 띠는 읽기이다. 또, 독자 중심의 읽기는 현상학에 기원하여 탈구조주의를 거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도 쇠퇴하지 않는 수용미학과 독자 반응 이론 등에 입각하여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開放적 읽기이다.(龍協濤, 2004: 3-9참조)

(박인기, 2001: 23-33 참조) 이를 다시 요약한다면, 완결된 문학(작품) 읽기는 작품에서 받은 느낌에 자기의 경험과 주관을 대입해 보는 '감응' 단계로부터 시작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설명해 보거나 평가 해보는 '해석' 단계를 거쳐, 그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인식' 단계에 이르는 자아 성찰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 삶의 총체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삶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김상욱, 2003: 199- 206 참조)

이처럼 위와 같은 복잡한 문학(작품) 읽기는 바로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의 학습 여건에서 언급한 여러 장애 요소를 해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 주의하여 이 과목의 목표를 다시 설명한다면, 즉 한국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생소함을 해소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인 한국인처럼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문학,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삶에 대한 인문학적 지혜, 상상력의 신장과 자아 성장도 성취될 것이다.¹⁸⁾

또한 이 과목의 교육 목표로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이 과목이 한국 문학론, 한국문학사 과목을 위한 기초 과목인 만큼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세계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목표에는 이 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학과와 양성 목표와 교육 목표¹⁹⁾를 감안한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8) 위의 다섯째 학습 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주체 형성'이란 목표를 빼 놓았다.

19) 앞의 각주2)를 참조할 것.

〈표 1〉『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육 목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전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한국 문학 능력 및 지식 창고로서의 한국 문화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좋아하고 한국을 잘 이해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도록 한다.

가.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언어적 요소 및 문화적 내용 등을 학습하여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세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체험, 이해하여 한국 문학 작품을 찾아 읽는 흥미를 갖게 한다.

다.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화, 한국인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정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게 되며 삶에 관한 인문학적 지혜, 자아의 성장, 상상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목표 총론 부분은 한국어학과 의 양성 목표와 교육 목표를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다. 한국어학과는 한국을 잘 이해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전문분야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에 적용시켜 위와 같은 목표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 목표를 다시 '가', '나', '다'로 세분하였는데, '가'는 '문학 작품 읽기 능력의 신장'이란 목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고, '나'는 앞의 요구처럼 이 과목이 한국문학론, 한국문학사 과목을 위한 기초 과목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의 결과이다. 즉 이 과목이 한국문학론, 한국문학사 과목을 위한 기초 과목인 만큼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세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나'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는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 및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란 목표에 대한 구체적 인 규정이다.

IV. 한국 문학 작품 선정 및 조직화

기존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에서는 주로 담당 교사 개별적으로 한국 문학 명작을 선택하여 강의해 왔기 때문에, 명작들이 선택될만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문학 작품 읽기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문학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 선정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기철(2004: 124-125)은 새로운 세대의 읽기 자료는 학습자 중심의 읽기 자료로 학습자에게 '알맞은 읽기 자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읽기 자료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읽기 능력에 맞는 잘 '이해되는 글'이어야 한다. '이해되는 글'은 학습자의 읽기 수준에 맞아야 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학습자가 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충분히 고려한 글이어야 한다.
- ② '공감이 되는 글'이다. 공감이란 글 속의 경험과 학습자의 경험이 유사하게 맞물리면서 학습자가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정서와 심리가 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감동 받는 글'이어야 한다. 감동이 공감의 발전적인 단계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필수 요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삶의 행복을 가져준다.
- ④ '나를 변화시키는 글'이어야 한다.
- 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글'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 읽기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학습자 중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 선정에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윤영(1999: 36-46)은 외국인을 위한 소설작품 선정 기준을 작품 선택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과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우선 흥미가 있는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흥미와 재미를 가진 작품이라도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문학 수업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 ③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문학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 ④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 ⑤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을 선별해야 한다.
- ⑥ 가능한 한 현대 작품이 좋다.
- ⑦ 주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 ⑧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 ⑦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韓國文學作品選讀'의 교육 목표 중에서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세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하여 한국 문학 작품을 찾아 읽는 흥미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때, ⑦번 기준은 적당하지 않다. 이 목표에 따르면 현대 작품만이 아니라 고대 작품까지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서영빈(1999: 200-202)은 문학텍스트의 특징을 신뢰성, 안정성, 문화성, 교양성, 취미성으로 개괄하면서, 작품의 언어적 측면에 입각한 교재를 편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학 작품 선별 기준을 보여주는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장르의 배정. 각 장르의 분량배정은 소설 50%, 시 20%, 수필 20%, 희곡 10% 정도가 좋을 듯 하다.
- ② 순서의 배치.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의 언어적 난이도를 염두에 두고 수필, 희곡, 소설, 시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발표시간 역순으로 작품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 시간대가 현재의 시간에서 가까울수록 학생들의 이해가 쉽고 멀수록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역순으로 해야만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 ③ 정전과 난이도. 문학사적 의의보다는 언어적 측면이 제1순위로 강조되는

텍스트를 선택하여야만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방언의 사용이 지나치다거나 언어감각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든가 하는 작품은 피하고 대신 현대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현실생활 문화가 많이 들어있는 재미있는 텍스트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미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소설 같은 것도 텍스트로 고려될 수 있다.

- ④ 분량. 대학교의 韓國文學講讀 시간 수는 대체로 36교시 내지 72교시이지만 이는 과학적인 검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새로 만드는 문학교재는 강의 시간 수를 주당 4시간, 2학기에 걸쳐서 강의할 수 있는 144시간으로 잡고 그만한 시간 수에 어울릴 수 있는 25만 자 정도가 적당한 교재분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①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역시 '韓國文學作品選讀'의 교육 목표 중에서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하여 한국 문학 작품을 찾아 읽는 흥미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각 시기의 각 장르의 작품을 학습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록될 장르는 소설, 시, 수필, 희곡 이런 현대적인 장르뿐만 아니라 고대 문학 장르도 포함될 것이고, 이런 장르들의 작품 수는 수업 시수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韓國文學作品選讀'의 교육 목표와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여건을 감안하여 이 과목의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 문학 세계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목표를 감안한다면 작품 선정 범위는 고전, 현대 각 시기의 각 장르, 다양한 작품으로 확대해야 하고 작품의 조직화에 있어서는 연대기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에 이어지는 '한국 문학론'이나 '한국 문학사' 과목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韓國文

學作品選讀 과목을 통해 한국 문학 세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 우선 시 된다. 따라서 현대 소설, 시에만 한정하여 작품을 선택해 가르쳐오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고전, 현대 각 시기의 각 장르의 다양한 작품을 골고루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역순으로 연대기적으로 작품을 선택·편성하는 것이 한국 문학 세계를 전반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중국인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것은 연대기적 작품 학습²⁰⁾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① 문학적 기법의 발전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② 문학적 전통이 일종의 논리 정연한 흐름 속에 놓여지게 된다. ③ 정치의 역사·언어의 역사를 포함한 제반 역사의 영향이 그 시대의 문학과 관련될 수도 있다. 그 역도 같다. ④ 음악이나 기타 예술 형태처럼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태는 문학과 상호 관련될 수 있다. (Raymond J. Rodrigues · Dennis Badaczewski, 1979: 31)

특히 ③은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에 적절히 부합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작품 배경으로서의 한국의 역사적 상황 및 사회·문화 내용인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작품 선택해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이 선정된 작품을 통해 작품과 그 작품이 창작된 배경으로서의 각 시대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 및 사회·문화를 더욱 쉽게 연결시킬 수 있고, 당시의 사회·문화 등을 더욱 상세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여기서의 '연대기적 작품 학습'이란 단지 연대적으로 작품을 선택해서 그 작품들을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이와 달리 '문학사 학습'은 오히려 해당된 문학 작품 학습을 통해 문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여기서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인 맥락에 관한 해석들이 많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 연대기적 작품 학습에서는 작품간의 연속성보다 개별 작품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조한 반면, 문학사 학습에서는 문학 작품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학의 사적인 맥락을 파악할 것을 중요시한다. 물론 연대기적 작품 학습에서도 문학 전통의 연속성이 드러나 문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문학사 학습이 불충분하다. 문학사 학습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연대기적으로 작품을 선택·편성하는 것은 학습자가 전반적인 한국 문학 세계를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문화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조직화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다면 작품을 연대의 역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학습자와 가까운 작품일수록 학습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대 각 장르의 작품 편성 순서는 구체적인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면 적극 참여하게 되고 잠재력도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문학 작품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이라야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읽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작품 읽기를 통해 자아의 성장 및 상상력의 신장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습자는 오히려 수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결국 효과적인 수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친밀한 주제와 상황이나 학습자에게 깨달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학습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다루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비록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더라도 문학적 가치가 없는 작품 선정은 곤란하다.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 중 언어예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적으로 가치가 검증된 작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 문학 세계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국문학계의 연구 성과를 늘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언어가 너무 어렵지 않고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 읽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대량의 언어적(어휘, 문법, 표현 등) 장벽에 기인한다. 언어가 무난하고 길이

도 그리 길지 않은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학습자가 언어적 장벽에 봉착하여 동기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 소설일 경우 단편 소설, 극일 경우 단막극을 주로 선정해 두는 것이 좋고 장편이나 장막극일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투리 등 어려운 말들이 많이 섞여 있는 작품이나 문체가 어려운 작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 사고방식, 정서를 잘 반영하는 작품,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문학(작품 읽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학이 풍부한 문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 사고방식, 정서를 잘 반영하는 작품,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해서 가르치면 한국 문화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앞의 조건들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중국 문학 작품과 비교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사물의 특징은 비교를 통해 더욱 두드러지므로 비교를 통한 학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므로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어왔으며 문학에 있어서도 많은 관련이 있으니 비교될 만한 작품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중국 문학 작품을 배운 바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 중국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문학적 시각에 입각한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런 비교문학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 문학 작품과 비교될 만한 한국 문학 작품을 선택해서 양국 문학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문학 작품의 특징과 문화 특징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곱째, 과목 개설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될 작품의 수량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수업 시간은 주당 4시간, 2 학기 36주를 거쳐 모두 144시간이 된다. 위에서 말한 연대기는 대체로 상고시대,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화기, 20년대, 30년~45년,

45~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모두 14개이니 각 시기의 수업 시간 수는 10시간쯤 될 뿐이다. 가능한 한 각 시기의 여러 장르를 다루는 것이 좋다는 기준에 따르면 각 시기를 다루는 시간에 詩를 제외한 다른 장르의 작품은 1 편 정도만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詩는 짧기 때문에 2, 3 편 정도를 학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1 편 정도만 학습할 수 있다고 해서 단 1 편만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같은 한국어 수준이라도 학생들이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선호도를 달리하고 있고(김경선, 2004: 19), 과외 시간에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수 편 씩을 선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V.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1. 기본 원칙

1) 학습자 중심과 활동 중심

교육이란 인간(교육주체, 교사)이 인간(교육대상, 학습자)을 인간(교육목표, 교육결과)이게끔 만드는 일이다. 이 중에서 교육대상인 학습자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교육목표인 교육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특징,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 맞는 교수법을 취해야 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게 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인지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모든 학습이 의미 있는 행위(meaningful activities)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학습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따라 문학 작품 읽기 교육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직접 전달하는 형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말하고 보여주게 한 후, 교사가 다시 지도 해주는 것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제반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활동 중심 원칙에 준하여 김대행(2002: 25-26)은 '경험의 원칙', '반응의 원칙', '모방의 원칙', '비교의 원칙'으로 세분하여 제의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교수-학습 활동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편, 독자 중심 이론에 따른 문학 읽기의 특성도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과 활동 중심의 교수법을 요구한다. 문학 읽기란 독자가 적극적으로 문학 작품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문학 읽기 교육에서 교사가 작품을 해석해 주는 기존 講讀식 교사 중심의 교수법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요구하고, 또한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도록 학습자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는 주로 발표와 토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과제 중심

최근, 언어교육 면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고, 실용성 중심의 언어교육 이론과 실체가 위세를 떨침에 따라 과제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주로 강조되고 있다. 언어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제'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형태가 아닌 의미에 중점을 두고 언어를 이해, 처리,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김정숙, 1998) 즉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언어 학습과 향상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수법은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언어를 통해 뭔가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강명순, 1999: 217) 것으로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 신장을 강조하는 이 교수법은 외국인을 위한 문학 작품 읽기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학습자가 주어진

문학 작품의 읽기, 이해와 감상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감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3) 통합성

이 과목은 비록 읽기 수업이지만 전면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를 고려할 때 쓰기, 말하기, 듣기, 번역 등 기타 언어 능력을 두루 향상시키도록 교수법의 통합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목의 목표인 한국어 언어 능력, 한국 문화 능력, 한국 문학 능력 중 어느 한쪽 능력만의 신장에 치우치지 말고 두루 향상시키도록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과 배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용 자료에 있어서는 교실 내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교실 외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독본도 통합성을 지녀야 하며, 언어 매체와 기타 매체(주로 영상 매체)와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²¹⁾

2.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

1) 한국 문학 작품의 해석

이상에서 제시한 원칙대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선정된 작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교재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고전작품의 표기문제이다. 예전의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현대의 학습자가 수용하기 어렵다. 현대어 형태로 다듬어서 제시하도

21) 영상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학(작품) 읽기를 저지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는 문학(작품) 읽기가 이루어진 후에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본다. 굳이 영상 매체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문학(작품) 읽기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상상과 인식이 다시 영상 매체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작품) 읽기에서 이루어진 작중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이해가 영상 매체에서 보여준 것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도 한다.

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작품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품 앞에 작가와 작품이 씌어진 시대적 상황 및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습자가 작품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여섯 살 난 나(옥희)는 24살 난 청상 과부인 엄마와 단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근의 학교에 근무하는 아버지 친구인 선생 아저씨가 집에 하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은 학습자들이, 작품속의 나와 어머니, 아저씨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파악을 대체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로써 작품을 계속 읽으려는 흥미를 돋울 수도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작품을 비교적 쉽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어려운 단어, 사투리, 문법, 표현 등에 대해 각주를 달아 해석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해석 방법과 해석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기본적으로 어려운 단어, 표현 등 어휘적 요소에 대해 해석할 때 먼저 한국어로 풀어서 해석한 다음, 그 단어나 표현 등에 대응되는 중국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대응되는 중국어가 없는 경우라면 한국어 해석만 하면 된다.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고,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모국어로 재확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또한 학습자의 번역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해석은 사전의

해석을 참고하되 가능한 한 이미 학습한 단어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고, 어휘적 요소에 담겨진 문화적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해 주는 것이 좋다.

예:22)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허탕: 아무 소득이 없음. 白費勁兒 ⇨ 허탕이다/허탕 치다/허탕 쪼다)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징검다리: 개천이나 물이 끈 곳에 돌덩이·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

② 동식물 이름, 인명, 지명 등의 특수 명사에 대해서는 각주 형식의 한국어 해석 없이 직접 대응되는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해석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필요할 경우 이런 특수 명사에 담겨져 있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이다.

예: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메밀꽃: 山茶花)

③문법에 대해서는 각주 형식의 중국어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예:

—우리, 가보지 않으련?

(-련: ‘-려느냐’, ‘-려고 하느냐’의 縮寫形式. 想……嗎?)

이상과 같이 작품을 해석하고 다듬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을 읽

22) 이하의 예문은 모두 황순원의 <소나기>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 35선』에 수록된 것 참조함)에서 뽑아낸 것이다. 아래 예문들에서 괄호 안의 해석은 실제로 각주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여기서 각주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려워서 문장 밑에서 바로 제시하고 있다.

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어려운 언어에 대해 설명할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로써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상을 도모할 수 있어 원만한 문학 읽기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이런 해석·디딤기 작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시급히 요청한다. 이는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또한 해석해야 할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원문에 대한 해석 없이 학습자에게 읽게 하는 테스트도 해야 한다.

2)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 모형

“韓國文學作品選讀”과목은 문학교육을 지향하는 과목이므로 그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데 있어서 국어교육에서 사용되는 “계획단계→진단단계→지도단계→평가단계→내면화 단계”란 문학교육 수업의 기본 틀(구인환, 2001: 276)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 이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의 과정이다. 이 과목은 문학의 읽기 능력, 즉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 작품 읽기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감응→해석→인식”의 과정을 밟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작품의 기본 내용 감응하기→작가가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해석하기→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와 사상적 의미를 인식하기”(王紀人, 2001: 369)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미적 체험과 심미적 정서가 형성된다.

이에 앞의 논의와 문학교육 수업의 기본 틀, 문학 작품 이해·감상의 과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안할 수 있다.

〈표 2〉 문학 작품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 모형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 과정	수업 시간	수업 일반 절차	세부 절차
문학 작품의 기본 내용에 대한 감응 단계	수업 전	1. 계획 단계 (준비단계)	학습자가 작품 미리 읽어 두기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과 인식 단계	수업 중	2. 진단단계	작품 이해 상황 진단 및 지도
		3. 지도단계	작품 감상 지도 작품 낭독 지도
		4. 평가단계	언어 능력, 문화 능력, 문학 능력에 대한 평가, 자아의 성장과 상상력의 신장 여부 에 대한 평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감상의 심화 단계	수업 후	5. 내면화 단계	

위의 도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째 수업 전의 계획단계(준비단계)에서 '학습자가 작품 미리 읽어 두기'를 설정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해석을 다는 작품을 스스로 읽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작품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진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 되는 만큼 작품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기해 놓고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함께 해결한다. 이 때 교사가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질문 몇 개를 먼저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수업 중의 진단 단계에서 학습자가 작품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상황을 진단한다. 이 때 학습자들이 작품의 이해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 장르에 따라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 등을 말함으로써 작품의 이해 상황을 진단하고 지도한다. 반면에 작품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워하는 부분을 왜 어려워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준다. 여기에는 주로 언어적 요소,

문화적 요소에 대한 해석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셋째, 수업 중의 지도 단계는 앞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감상을 하도록 지도하는 단계이다. 감상할 내용은 孟抗美(2002: 167-236)가 제시한 (1)문학 작품의 예술적 형식에 대한 파악, (2)심미적 정서에 대한 체험, (3)인문학적 지혜에 대한 계발, (4)사상·도덕의 승화²³⁾를 취할 만하다. 이런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작품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학습, 자아 성장과 세련된 상상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질문하기 방법, 토론하기 방법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제 활동을 가질 수 있다.

넷째, 평가 단계에서 수업의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수업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에 따라 언어 능력, 문화 능력, 문학 능력 및 자아의 성장과 상상력의 신장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다섯째, 내면화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일보 연구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韓國文學作品選讀’이란 과목은 중국의 한국어교육 중 문학교육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없었다는 등의 제 요인 때문에 교수 상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 과목에서 진행되는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체계화되도록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의 측면에 입각하여 이 과목의 목표, 작품의 선정 및 조직화, 교수-학습 방법 문제를 다루었다.

연구의 결과로, 이 과목의 교육 목표는 “한국 문학 작품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전면적 의사소통, 문학·문화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인을 더

23) (1)把握藝術形式、(2)體驗審美情感、(3)啓迪人文智慧、(4)完善思想道德

잘 이해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고, 작품 선정 및 조직화에 있어서는 일
 곱 가지 기준과 연대기에 의한 조직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서는 이 과목의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중국에서의 문학 작품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의 이론화를 도모하는 이 연구는 早期 연구로서 충
 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래도 早期의 연구인만큼 포
 괄적이고 일반론적인 논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갖고 있다. 이러
 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향후 보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한중 중·고등학교 문학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이런 연구
 를 통해 한중 문학관 및 문학 교수-학습 방법 등의 차이점이 밝혀질 것
 이고, 또 한국 문학을 학습하는 중국인만이 갖고 있는 특징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 및 한국 문학 작품의
 교수-학습 방법도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용 한국 문학 작품 목록의 작성이 시급하다.

셋째, 구안된 교수법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교수법에 대한 피드백
 을 받아 분석함으로써 교수법 개발을 위한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
 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중국인을 위한 문학 작품 교수-학습 이론이 개발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6. 29. 투고되었으며, 2005. 7.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5. 7. 28. 심사가 종
 료되었음.

▣ 참고문헌

1. 자료

- 김경선 편(1997), 『한국문학선집』, 中國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서영빈 편(1995), 『韓國現代文學』, 中國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황순원, 〈소나기〉, 이병렬 편(1995), 『꼭 읽어야 할 한국단편 35선』, 타임기획.

2. 단행본 및 논문

- 강명순(1999), “과제 수행 중심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창립 15주년 기념: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217~218쪽.
구인환 외(2001), 『문학교육론』, 삼지원.
김경선(2004),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활용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과 문학』, 제6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쪽~22쪽.
김대행(2002), “한국문학사와 한국어 능력”, 세계 속의 조선(한국)언어 문학 교양과 교재 편찬 연구 국제학술토론회의 논문자료집, 20쪽~26쪽.
김상욱(2003), 『문학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김승환(2002),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문학교육 방법론”, 효과적인 한국어 보급과 지원 체계의 활성화 방안, 제3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71쪽~91쪽.
김정숙(1998),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남 연(200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5-3, 43쪽~62쪽.
문복희(2001), “한국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와 수업방식”,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315쪽~331쪽.
박인기(2001), “문학을 읽는 이유”,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 삼지원, 20쪽~39쪽.
서영빈(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방안”,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196쪽~213쪽.
송취재(2002), “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읽기 교수법 전략”,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2, 249쪽~256쪽.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19차)학술대회, 1쪽~29쪽.
윤 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이은숙(2001a),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학교육의 문제와 전망”, 『대외경제무역대학 학술회의 논문집』, 203쪽~213쪽.
이은숙(2001b), “외국인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재로서의 『혼불』 고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Ⅲ.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351쪽~370쪽.

정기철(2004),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0.

주옥파(2003),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특수성”,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19차) 학술대회. 71쪽~79쪽.

주옥파(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 『국어교육학연구』 20, 499쪽~522쪽.

龍協濤(2004), 『文學閱讀學』, 中國北京大學出版社.

孟抗美(2002), 『文學藝術教育』, 中國人民出版社.

王紀人 편(2001), 『文藝學與語文教育』, 中國上海教育出版社.

Raymond J. Rodrigues · Dennis Badaczewski(1979), 박인기 · 최병우 · 김창원 옮김(2001),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초록〉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 연구

-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을 중심으로 -

南 燕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은 중국 한국어교육 중 문학교육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어 교육과정 중의 문학교육의 위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적절한 문학 교재의 부재, 교사 중심의 講讀식 교수법의 고수, 전문교사로서의 자질의 부족, 문학 작품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전무 등의 요인 때문에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현 단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이 실제에서 체계화되도록 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의 목표, 내용 선정(작품 선정), 교수-학습 방법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은 우선 교육과정의 구축을 위한 선행 고찰로서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여건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와 이 과목이 차지하는 위치,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를 감안하고, 문학 읽기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이 과목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있는 읽기 자료의 선정 기준과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과목의 교육 목표와 중국인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 선정 기준 7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 읽기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문학 작품 읽기 교육의 일반적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 학습 여건, 교육 목표, 작품 선정 및 조직화, 교수-학습 방법, 작품의 해석,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 모형

〈Abstract〉

**A Study on the Reading Instruc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for Chinese Learners**

-concerning around subject of 'reading Korean literary works'-

Nam, yeon

Subject of 'reading instruc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is very important as it is the foundation of the other two content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is subject of 'subject of 'education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and 'Korean literature studies'. But due to the absence about this subject and other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the textbooks and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instruction, this subject has not been proceeded successfully till now. So in order to make this subject proceed successfully, this paper made a study on the conditions given to the chinese learners for studying the Korean literary works firstly, and on the basis of this the paper studied on the objective, the contents(selection of organiz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and the teaching method as an effort to frame the curriculum of this subject. In the paper the researcher set the objective by analyzing the essence of reading literary works and referring to the objective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 and the position of this subject in th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nd the researcher also made a study on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by referring to the objective of this subject and the features of chinese learners and existing result about this aspect. And lastly the researcher made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by clarifying the principle, the method of explicating Korean literary works and the general model of teaching procedure.

【Key words】 subject of 'reading Korean literary works' conditions of studying,
objectiv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literary works teaching

method explic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the general model of teaching procedure.